

발달장애인의 삶에 희망의 싹을 틔우다



남영란 성민복지관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과정설계 모델을 연구하고 헌신한 공로로 2022년 아산상 복지실천상을 수상했다.

2023년 8월, 사회복지법인 성민 20주년, 성민복지관 개관 14주년 기념 행사를 열던 날, 한 어머니가 강단에 올라 발달장애인 자녀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남영란 성민복지관 사무국장은 그날 어머니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그가 연구하고 실천했던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과정설계 모델의 소중한 첫 결실이기 때문이다. “2015년에 발달장애인 자녀와 함께 평생과정설계에 참여하신 분이었어요. 자녀가 40살이 될 때 직업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정하긴 했지만 사실 믿지 못하셨대요. 그런데 복지관의 말을 믿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더니 정말 40살에 디자이너로 취업을 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셨어요.”

남영란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 자녀도 취업 이후 스스로

디자이너라는 자부심이 생겨서 옷차림도, 행동도 많이 달라지더라’며 ‘꿈을 갖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 그 어떤 활동보다 장애인에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한 사람의 일생을 만드는 일

남영란 사무국장에게 이 일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과 가족 복지 분야에서 일하던 남영란 사무국장은 2011년 성민복지관 전략기획팀장으로 입사한 후 본격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성민이 개발한 장애인을 위한 평생과정설계를 연구하고 실천해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주거, 교육, 보건의료, 문화여가, 법률 등의 영역에서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평생과정설계를 쉽게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도록 당사자가 제작 과정에서 직접 참여해 그들의 눈높이를 맞춘 평생과정설계 콘텐츠도 개발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제34회 아산상 복지실천상을 수상했다.

“평생과정설계에 대해 설명하면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따라와요. 그건 사실 답이 없습니다. 함께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가는 과정이다보니 매뉴얼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마다 능력도 재능도 다 다르고 어떤 미래를 그릴지도 다 다르니까요. 핵심은 발달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꿈,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항상 한 사람의 일생이 내 앞에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영란 사무국장은 꾸준히 발달장애인, 가족과 대화하고 생각을 공유한다.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떤 지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일지를 고민하고, 가족들과 공유해서 자립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기 위해서다. “상담을 하면서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요. 우리 성민복지관에서 주거, 취업 등 다양한 미래준비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으니, 이제는 치료보다 자립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고요. 우리와 함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독립후기, 취업사례를 공유하며 장애인 중심의 자립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죠.”




발달장애인 교육 중인 남영란 사무국장.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사례를 발표하는 남영란 사무국장.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현재 성민복지관에는 3,900명의 발달장애인이 등록되어 있고, 하루 평균 250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그들 중 19명이 그들이 선호하는 미술활동을 기반으로 디자이너로 취업해 일하고 있고, 24명이 자립해 장애인지원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갈 수 있는 기반이 착착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개척자의 어려움이 있다. 그는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과 현실적 문제로 부딪치던 시기에 아산재단에서 상을 받게 되어 큰 격려가 됐다’고 말한다.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된 이후 10여 년이 흘렀어요. 지금까지의 성과를 가지고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예요. 개인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가족과 지역사회의 준비, 지원기관의 역할 등 각각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죠.” 남영란 사무국장은 ‘실천가들이 장애인의 미래 준비 동행자가 되도록 육성하고 이들의 비전실현에 함께하는 좋은 조직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 제가 기여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글 편집부